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30일 앞둔 7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외벽에 이번 전시의 주제인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모두의 울림으로 세계에 감동을

광주비엔날레 D-30

작품 설치 등 개막 준비 본격화

9월 7일 개막...32국 72명 작가

31개국·기관 참여 파빌리온 눈길

세계적 미술축제인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8일 홍보관 개관, 본전시 작품 설치 본격화 등 개막 준비가 한창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박양우)은 최근 K-pop 글로벌 아티스트 멤버로 구성된 'NCT WISH'를 홍보대사에 선정하는 등 축제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등 배너도 순차적으로 설치해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 양림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니콜라 부리오 감독과 32개국 72명 작가가 참여한다.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한 본전시 외에도 국의 우수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전시가 진행된다.

◇본전시 작품 설치 본격화, 9월 5~6일 전시 프리뷰=먼저 개막 한 달을 앞두고 전시작품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과 60여명 작가들이 시차를 두고 입국해 설치 작업에 참여하며, 이달 내 작품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9월 5~6일에는 전시 프리뷰를 진행, 기자단과 작가 등 전시 관계자들에게 작품을 공개한다. 주전시관인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는 동시대 공간을 탐색하는 한편 기후 변화 등 전지구적인 현안들이 공간의 문제를 탐구한다. 전시 공간은 '부딪힘소리'(Larsen effect), '겹겹소리'(Polyphony), '처음소리(Primordial sound)'의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공간(판)이라는 의제를 소리(사운드)로 공명을 시도함으로써 관람객은 간단한 서사를 매개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양림동 일대 8개 전시공간에도 작품이 설치된다. 양림문화센터를 비롯해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한부철갤러리, 한희원미술관, 양림살롱, 옛파출소, 빈집,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이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비앙카 본디는 장소와 연결성을 매개로 한 설치미술을, 줄리앙 아브라함 코기는 소리 시각을 활용한 작품을 각각 선보인다. 아울러 70여명 작가는 다양한 작품을 본전시관, 양림동에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현대미술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1개 국가·기관 참여하는 파빌리온의 '매력'=올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대 최대 규모의 파빌리온 전시가 운영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상 첫 '광주 정신'과 발전방향을 조망하는 '광주관'도 개관한다.

파빌리온은 첫 선을 보인 2018년(제12회) 3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제14회) 3배가 늘어난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창설 30주년(제15회)인 올해는 6개 대륙 31개 국가·문화기관이 함께한다. 국가관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기획자, 기관과 국가의 콜라보레이션 등이 예정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7개 국과 중국, 일본, 카타르가 참여한다. 유럽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 8개 국가가 현대미술을 선보인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 참여했던 스위스는 올해는 파빌리온 전시 대신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남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와 페루가, 북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와 함께 한다. 미국은 다양한 아메리카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아메리카관'을 운영한다.

광주시도 '무등: 고요한 긴장'을 주제로 한 '광주관'을 광주시립미술관 2~3층에 마련, 첫 선을 보인다. 불평등과 이기심이 만연한 국제정세에서 '무등정신'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나침반의 역할을 상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양우 대표이사는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다양한 경계를 넘어 동시대 현대미술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라며 "특히 파빌리온에 31개국 참여하는 것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구심점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의대·대학병원은 한 곳에 함께 설립돼야” “탈락지역 공공의료원 부속병원 활용 가능”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도민 공청회

용역기관 설립 방안·장단점 제시

평가 기준·공정성 확보 등 관심 커

“대학 부속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부권, 서부권 모두 의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남에는 순천의료원(동부권), 강진의료원(서부권) 등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2개 의료원을 각각 대학 부속병원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국립의대 추천 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기존 지역의 의료원을 제1부속병원 수준으로 키운다면 탈락에 따른 상실감을 덜어줄 것입니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권역별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는 임상 실습이 중요한데, 의대와 부속병원 거리가 멀어지면 임상실습·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입니다.”

7일 오후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열린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는 전남지역의 국립 의대 설립의 정당성과 의대 설립에 따른 부속병원의 역할, 위치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청회가 열린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회의실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200개 넘는 자리가 가득 찼고 일부 주민은 선 채 공청회를 지켜봤다.

용역 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이날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 추천대학 선정, 이렇게 진행합니다'라는 책자를 배포하고 추천을 위한 공모 추진 방향·계획, 절차 등을 안내했다.

지평 컨소시엄은 특히 설립 방식과 관련, ▲단일 캠퍼스-단일 병원 ▲단일 캠퍼스-복수 병원(신설) ▲단일 캠퍼스-복수 병원(신설+인수/위탁·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장·단점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용역 기관이 정부 추천 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선정 지역과 함께 부속병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이나 기존 병원과의 협약에 따라 부속 병원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적극적 투자에 따른 어려움 등의 방안을 설명할 때는 휴대폰으로 관련 내용을 촬영하는 지역민들도 눈에 띄었다.

추천 절차가 끝난 뒤 진행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에는 부속 병원 설립, 추천 지역 선정 과정에서의 엄정한 평가 기준,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관심이 컸다. “병원을 의대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 “공공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확보하면 적은 비용으로 2개 지역 설치 가능 하다”, “다양한 의료 취약지 지표를 반영해 지역 건강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을 제시하는 주민들이 잇따랐다.

2026년 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오는 10월까지 대학 선정과 정부 추천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남도가 정부 요청에 따른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용역 기관은 이와관련,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총리의 정부합동 의료개혁 담화문, 주무부처의 국회 답변 등을 소개한 데 이어 향후 과정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는 8일(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9일(순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등에서 잇따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검찰총장 후보 장흥 출신 신자용 등 4명 압축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로 장흥 출신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이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는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

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놓쳐서는 안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 충북, 강원도에도 여러 개 있는
의과대학이 전남에만 없습니다.

온 도민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마침내 정부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 ◆ 대통령 '민생토론회'('24년 3월)
'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지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
- ◆ 국무총리 '정부합동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4년 3월)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의견 수렴해 신청하면 정부가 신속 추진'
-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상임위원회'('24년 6월)
'교육부는 전남도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상임위원회'('24년 7월)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신속 검토'

전남도가 정부 요청대로 대학을 추천해야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학 추천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전남도는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양 대학이 참여하고 온 도민이 합심해 뜻을 관철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추천되지 않은 지역과 대학에 대해서도
추천된 지역에 버금가는 의료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